

목포시 '시민 웃게하는 적극 행정' 실현 5대 과제 추진

제도 활성화·소극행정 척파 등...혁신본부장 임명·전담부서 지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교육 실시...“시민 만족도 높이는 행정 집행”

목포시가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시 출자·출연기관까지 독려하는 등 시민 만족도 높이기에 나섰다.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민을 웃게 하는 행정'으로 희망찬 목포만들기를 비전으로 적극행정 실행을 위한 5개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5개 추진 과제는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위한 ▲적극행정제도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척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이다.

시는 적극행정에 힘을 싣고 5개 추진 과제를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시장을 혁신본부장으로 임명하고 기획예산과를 전담부서로 지정, 감사·자치행정과의 협업을 통해 책임감 있게 적극행정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북항 뒷개 청춘골목 상권 활성화,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확대, 교육 분야에서는 목포사랑 시민대학 운영, 복지 측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선정

해 특별관리하고 지원한다.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적극행정 교육도 할 예정이다. 우수공무원 선발과 교육은 시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시 산하 9개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서 운영한다.

소극행정 예방을 위해서는 소극행정 예방교육 및 예방지침서를 배포하고 타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해 적극행정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적극행정위원회 회의는 목포시 적극행정의 초석을 마련하는 자리였다”라며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시민과의 소통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중점과제를 관리해 시민 만족을 높이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지난 21일 목포시가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적극행정을 위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목포시 제공>

완도군, 해양치유센터 연계 섬 관광상품 개발한다

수도권 여행사 1박 2일 팸투어

완도군이 완도해양치유센터와 연계한 섬 관광상품 개발에 나섰다.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여행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1박2일 팸투어를 진행했다.

완도해양치유센터와 섬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팸투어는 첫날 보길도 운선도원림과 송시열 글씨바위 등 보길도의 아름다운 경관과 문화를 체험했다.

2일차에는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 다양한 테라피를 경험하며 해양치유 효능을 몸소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해양치유 체험 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여행사 관계자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표했다.

완도해양치유센터와 보길도, 청산도 등 섬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에 적극적일 의지도 밝혔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여행사 인센티브에 대한 설명과 여행 패키지 구성 시 시간과 가격대 등 완도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여행사 한 관계자는 “여행을 통해 섬을 얻거나



수도권 여행사 관계자 대상 팸투어 참가자들이 보길도 운선도 박물관을 찾아 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완도군 제공>

힐링을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점에서 섬과 완도 해양치유센터를 연계한 팸투어는 매우 만족스러웠다”며 “매력적인 상품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여행사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완도에서 할 수 있는 이색적인 관광상품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해남군, 난임부부 6쌍 한방 치료비 지원

해남군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위해 한방치료비를 최대 180만원 지원한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37가구 난임 부부가 지원을 받아 한 가정에서 임신에 성공하기도 했다. 올해는 난임 부부 6쌍에 한방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전남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사실혼 포함) 중 1년 이상(3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난임 부부다. 한방 난임치료 기간동안 양방 난임시술(체외·인공수

정)을 받을 수 없다. 치료 기간은 대상자 확정 후 4개월이며, 180만원 한도 내에서 4개월 분량의 한약이 지원된다. 치료 종료 후에는 2개월간 한의사회에서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건강 상태와 임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난임 부부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양·한방 지원체계를 구축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헌혈자에 제주~목포·진도 여객·차량운임 할인”

씨월드고속훼리, 광주전남·제주혈액원과 헌혈 장려 협약



씨월드고속훼리는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5일 대한적십자사 혈액원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헌혈자에게 제주~목포, 제주~진도 구간 여객운임을 평일 30%, 주말 20% 할인해주기로 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제주특별자치도혈액원과 씨월드고속훼리주사가 25일 오후 목포 분사 대회의실에서 체결했으며, 자발적 헌혈 문화 확산과 헌혈 증진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헌혈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씨월드고속훼리주는 헌혈자에게 제주~목포, 제주~진도 구간 여객 운임을 평일 30%, 주말 20% 할인하고(이코노미, 다인침대), 차량 운임도 20% 할인해주는(승용차량에 한함) 혜택을 제공한다.

이중훈 씨월드고속훼리 대표는 “이번 협약은 헌혈 문화 확산뿐만 아니라 ESG 경영 실천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재광완도군향우회 이장배 회장이 '2025 완도 방문의 해' 선포식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최고액인 2000만원을 기탁한 뒤 신우철 완도군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완도서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 나왔다

이장배 향우회장 2000만원 기탁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기부 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 가운데 완도군에 최고액 기부자가 나왔다.

26일 완도군에 따르면 재광완도군향우회 이장배 회장이 최근 '2025 완도 방문의 해' 선포식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최고액인 2000만원을 기탁했다. 이 회장은 완도군 금당면 출신으로 (주)지형건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제 22대 재광완도군향우회를 이끌고 있다.

이장배 회장은 “내고향 완도 발전을 적극적으로 응원한다”며 “그 과정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고

향사랑기부금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군은 '2025 완도 방문의 해' 선포식 때 고향사랑기부금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배운 위하준을 비롯한 완도군 홍보 대사와 출향인, 행사 관계자들의 관심을 보였다.

고향사랑기부금 포털과 전국농협은행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된다. 고향사랑기부금 담례품은 활천복과 김·미역·다시마 등 총 93종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많은 분의 정성으로 모인 기부금은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암군 '주민과의 대화' 성료...제안·건의 224건 접수

농특산물 식품 부스 시식·시음 제공

영암군이 지난 24일 미암면을 마지막으로 '혁신의 꽃, 열매를 맺다'를 구호로 각 읍·면을 찾아가 개최한 '2025 혁신 공감 주민과의 대화'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올해 균형 운영 방향과 주요 업무를 보고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주민이 행사에서 제출한 제안·건의 사항은 총 224건으로, 각 읍·면으로 나눠보면 영암읍 14건, 삼호읍 26건, 덕진면 12건, 금정면 11건, 신북면 28건, 시종면 18건, 도포면 14건, 군서면 32건, 서호면 33건, 학산면 20건, 미암면 16건이었다.

주요 내용은 지난해 접수 피해 하천 및 제방 정비, 마을안길 및 농로 확대 등을 포함해 ▲천황사 물통거리 편백숲 조성 ▲무화과 영농부산물 파쇄 처리장 설치 ▲대전동문화사업 제안 ▲대봉감 시배지 공원 조성 ▲대체작물 확대 권장 방안 마련 ▲군서면 소전머리 황장생 및 영세불량비 등 역사 유물 정비 ▲읍·면 계절별 명소 조성 ▲학 테마 확산 수변공원 등이었다. 우승희 군수는 균형 운영 방향 및 주요 추진업무 보고에서 글로벌 시대에 맞춰 영암군에 맞고, 영암군만 추진할 수 있는 ▲정년활력도시 ▲달빛생태문화도시 ▲지속환경제



우승희(왼쪽 세번째) 군수가 주민과 대화에서 균형 운영 방향 및 주요 추진 업무를 설명하고 있다.

▲에너지 대전환 ▲농정대전환 ▲가치지향 복지 등 8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축소에 따른 긴축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위기 상황 속에서 지속가능하고 살고 싶은 영암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라고 전했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행사장 안팎에 영암 농특산물 가공식품 전시 부스가 마련돼 주민 시식·시음 기회가 제공됐다. 행사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된 영암군 구전설화(금마왕자와 율출산 낭자)도 상영돼 호응을 얻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행사 시작 전, 영암의 먹거리·볼거리·즐거거리를 알리고, 혁신으로 도약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는 취지로 '영암이 좋아요' 캠페인도 열렸다. 각 읍·면 주민들은 캠페인 동영상을 시청, 기념촬영, 구호 제창을 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주민과의 대화에서 제안·건의된 안건들이 바로 혁신이다”면서 “자랑스러운 지역 선조들의 창조와 혁신의 DNA를 계승해 지방소멸 극복을 넘어 알차고 매력적인 국제도시 영암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고 말했다.

진도군, '치매안심택시 송영서비스' 업무협약

치매환자 택시 무료 이용

진도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치매안심택시 송영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서비스는 치매 환자가 치매안심센터의 인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이동이 불편한 주민이 조기 검진을 받고자 할 경우, 택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이번 협약은 관내 개인 및 법인택시 기사 6명과 체결했다.

진도군은 매년 송영서비스에 참여하는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치매파트너 교육'을 진행,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치매 환자에게 월 3만 원 한도의 약값 지원(기준중위소득 140% 이하)과 기저귀 등의 물품과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 인식표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목포상의, 회원사 전기요금 절감 지노베이션C&C와 협약

목포상공회의소(회장 정현택)는 회원사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주)지노베이션C&C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고물가와 고환율을 등으로 기업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회원사의 부담을 덜기 위한 회원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주)지노베이션C&C는 목포상의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며, 전기공사비

용을 전액 선투자한다. 또 한국전력공사 기준에 따른 안전진단과 노후 전력 설비 점검을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현택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사가 전기요금 절감 컨설팅을 받고 제조원가 부담을 덜어 기업 경쟁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